

여자배구·야구 오늘 운명의 한판 승부



김연경

여자배구 - 오전 9시 터키와 8강전

김연경과 친구들 양보없는 대결

야구 - 오후 7시 일본과 결승티켓 다툼

도쿄올림픽 최고의 명승부 예고

여자배구와 야구가 4일 나란히 운명의 승부에 나선다.
‘주장’ 김연경이 이끄는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이 4일 오전 9시 터키와 4강 진출을 다툰다. 오후 7시에는 김현수가 전면에 선 한국야구대표팀이 ‘한일전’을 갖고 결승행을 타진한다. 야구대표팀이 결승 길목에서 일본을 만난다.
2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11-1, 7회 콜드승을 기록하면서 한숨을 돌린 한국은 이날 오후 미국과 일본의 경기를 보면서 준결승전 상대가 결정되길 기다렸다. 그리고 일본이 10회 연장 승부치기에서 나온 카이 타쿠야의 끝내기 안타로 7-6 승리를 거두면서 ‘한일전’이 성사됐다.
‘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둔 팀은 금메달 결정전에 직행한다. 패자가 되더라도 패자부활전 방식 덕분에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패자부활전을 거쳐 결승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다시 일본을 만나야 하는 만큼 이번 경기는 결과와 과정 모두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분위기는 좋다.
미국에 패해 조 2위가 됐던 한국은 지난 1일 녹아웃 스테이지 1차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에 1-3으로 끌려가다가 9회말 김현수의 끝내기 안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그리고 2일에는 공격 고민을 깨고 이스라엘을 콜드승으로 제압하면서 상승세를 탔다.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렸던 김현수가 이스라엘전에서는 사실상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투런포까지 날리면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주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전 끝내기 승리로 분위기가 절정이다.
5-6으로 뒤진 9회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고, 연장 10회 끝내기 승리를 연출하면서 이번 대회 3연승 중이다.
한국에서는 ‘잠수함’ 고영표가 선발로 출격한다. 일본은 150km후반대 공을 뿌리는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선발로 나선다.
여자배구는 잘 아는 상대와 8강에서 만난다.
여자배구는 지난 31일 열린 일본과의 경기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8강행을 확정했다. 1차 목표인 ‘8강’을 이룬 한국은 8강 팀 중 유일한 아시아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6 리우 대회 우승국인 중국과 개최국 일본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켰다.
한국은 다시 한번 투혼의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8강에서 만나는 터키는 어려운 상대다. 한국이 세계랭킹 14위, 터키는 4위의 강호다. 앞선 9번의 대결에서도 2승 7패로 열세다.
전력의 핵심 김연경에게는 잘 아는 상대와의 승부다.
김연경은 터키리그에서 오랜 시간 뛰었다. 당연히 터키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 사령탑들의 대결도 흥미롭다.
한국의 스테파노 라바라니 감독과 터키의 지오바니 귀데티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역시 서로를 잘 안다. 라바라니 감독은 귀데티 감독 밑에서 코치로 뒀던 경험이 있다.
또 한국대표팀의 세자르 에르난데스 코치 역시 귀데티 감독이 지휘하는 터키 바키프뱅크에서 코치로 일하고 있다. 물론 귀데티 감독은 김연경도 잘 안다.
잘 아는 상대들의 만남에서 한국이 승자가 돼 놀라운 ‘원팀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를 기자 wool@kwangju.co.kr



이정후

‘다이빙 간판’ 우하람 아쉬운 4위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 (2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아쉽게 올림픽 첫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역대 최고 성적을 일궜다.
우하람은 3일 일본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다이빙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6차 시기 합계 481.85점을 받아 12명

선수 중 4위를 차지했다.
4위는 우하람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남자 10m 플랫폼에서 기록한 11위를 넘어 한국 다이빙의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이다.
한국 다이빙은 1960년 로마 대회부터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아직 메달을 딴 선수는 없다.

전날 예선에서 합계 452.45점으로 29명 중 5위를 차지한 우하람은 이날 오전 18명이 겨룬 준결승에서는 403.15점을 받아 12위로 아슬아슬하게 결승에 올랐다.
한국 다이빙 선수가 예선을 거쳐 올림픽 결승까지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남자 3m 스프링보드 결승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하람은 3차 시기에서 앞으로 서서 앞으로 완전히 구부린 채로 네 바퀴 반을 도는 난도 3.8의 연

기를 펼쳐 12명 중 가장 높은 91.20점을 받고 4위로 올라섰다. 3위 잭 로어(영국)와는 3.05점 차였다.
결승에서는 뒤로 서서 뒤로 완전히 구부린 자세로 세 바퀴 반을 도는 난도 3.6의 동작으로 바퀴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입수 동작에서 흔들려 68.40점을 얻는데 그쳤다.
순위는 4위 그대로였지만 5차 시기에서 96.90점을 받은 로어는 훌쩍 달아났다.
/연합뉴스

부상 딛고 금메달 ... ‘도마 황제’ 신재환 위대한 정신력

고교 때 허리 디스크 수술
철심 박고 재활로 극복

2020 도쿄올림픽 남자 기예체조 도마에서 한국 체조에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한 ‘도마 황제’ 신재환 (23·제천시청)은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 허리 부상 얘기가 나오자 “그 얘긴 하고 싶지 않다”며 언급을 피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자신을 짓눌러 온 과거를 떠올리진 싶었을 것이다.
신재환은 충북제고 재학 시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다. 12살 때 시작한 체조를 그만뒀야 할 상황에 부딪쳤지만, 철심을 박고 재활로 보란 듯이 이겨냈다.
당시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신재환은 “부상으로 체조를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힘들었다”며 “그 순간을 극복하려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고 회상했다.

신재환의 한국체대 은사인 대한체조협회 한충식 부회장은 “운동선수라면, 체조 선수라면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인생을 함께 살아간다”며 “신재환이 장한 점은 큰 부상을 이겨내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사실”이라고 3일 강조했다.
신재환은 도마에 가장 필요한 주력과 도약력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췄다. 강력한 허리 근육의 힘이 바탕을 이루지 않고서는 화려한 공중 동작과 엄청난 가속도로 떨어지는 착지 동작을 버텨낼 수가 없다.
신재환은 지금도 허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손을 허리 쪽에 댄다고 한다. 선수로 뛰는 한 늘 겪어야 하는 일로 부상 트라우마 역시 은퇴 전까지 이어질 마음의 짐이다.
2012 런던올림픽 도마에서 한국 체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수확하고 이번에 9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했던 양학선 (29·수원시청)은 8명이 겨루는 결선 진출에 실패한 뒤 “부상 트라우마에 내가 졌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학선에게 금메달을 기대한 어떤 체조인들은 더 강인한 정신력을 주문했다.
하지만 세계 챔피언에 등극한 선수만이 고뇌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 부상 재발과 선수로서의 이력을 스스로 걱정해야 하는 선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더 나은 길로 움직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올림픽에서 꼭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쿄올림픽 6관왕에 도전했다가 5개 종목 중 3개만 기권 또는 완전 기권하고 3일 평균대 결선만 뛰는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 (24·미국)가 대표 사례다.
양학선을 대신해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상 트라우마를 인생의 도약에서 모두 떨친 신재환의 멘탈은 목에 건 금빛 메달보다 더욱더 찬란하다.
/연합뉴스



신재환

도쿄올림픽	
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 (4일)	
	오전 7시 30분 여자 1라운드 박인비, 김세영, 고진영, 김효주
	오전 9시 여자 8강 한국 - 터키
	오전 11시 남자 그레코로만형 67kg급 류한수
	오후 2시 30분 남자 단체전 준결승 한국 - 중국 장우진, 이상수, 정영식
	오후 5시 여자 8강 한국 - 스웨덴
	오후 7시 남자 준결승 한국 - 일본
자료/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